

12/23/18

설교 제목: 성탄의 의미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태복음 1 장 18-23 절, 눅 2 장 11-14 절, 요한복음 1 장 14 절

마 1 장 18-23 절

- (마 1: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 (마 1: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 (마 1: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절관주** 눅 1:35, 사 7:14
- (마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 (마 1: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 (마 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눅 2 장 11-14 절

- (눅 2: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 (눅 2: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 (눅 2: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 (눅 2: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요한복음 1 장 14 절

-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Merry Christmas!

가는 곳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흥겨워하며 Merry Christmas!를 외칩니다.

그 모습이 정말 기쁘고 정겹습니다.

한동안 잃어 버렸다가 다시 찾은 크리스마스이기에 그 기쁨은 더 큼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표현한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바로 직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재직시 그의 종교 정책으로 인해 Merry Christmas!라는 말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도 공공 시설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샵핑 몰 등에서 Merry Christmas!는 고사하고 그 흔한 캐롤 송 하나 흘러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성탄 절기라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삭막했습니다.

사람들은 Merry Christmas! 대신에 Happy Holiday!를 외쳤습니다.

Happy Holiday의 주인공도 잊어버린채 말입니다.

그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다시 성탄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탄절은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만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마땅히 죄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 값이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형벌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창조한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파서 그대로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낼 한 가지 합당한 방안을 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 밖에 없는 아들과 하늘에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쌍방 행위 계약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가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충성되이 수행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묵묵히 죽기까지 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셨습니다.

채찍으로 맞아 피 투성이가 된 채 '네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냐'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참아내며 십자가에 달려 죽어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인간이 죽음에서 건져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죄인이지만 죄 사함을 입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 죽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이땅에서의 탄생은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한없이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없이 슬프기도 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아이러니컬한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 1. 성탄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입니다.

(마 1: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진 언약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였습니다.

(사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아기로 태어나는 메시아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는 분임을 예언하였습  
니다.

(사 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 2. 성탄은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마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 하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움을 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고 경제적으로 춥고 배고프지  
않게 해 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빈곤과 억압, 질병과 전쟁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지 않고 '죄에서 구  
원할 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지금 당장 눈 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당장 직면해  
있는 일시적인 문제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저주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가난과 기근과 질병과 전쟁 등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죄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 3.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 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한 복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찾아 오시되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성육신 incarnation 하신 것입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 2: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빌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에 죽으심이라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4. 성탄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눅 2: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눅 2: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 목자들이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께 달려왔을 때 홀연히 수  
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에서는 창조 이래 최대의 영광이요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땅에 보내셔서 죽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성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나신 기쁜 날입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계약을 맺으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죽으러 내려오신 날입니다.

Merry Christmas 는 Merry+Christ+Mass 가 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Merry 는 즐겁고 유쾌한이란 뜻입니다.

Christ 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킵니다.

Mass 는 미사, 즉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Merry Christmas!' 본래의 의미는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라는 말입니다.

Merry Christmas!

우리 모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러 이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